

##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

### 현대미포조선, 컨테이너선 수주

현대미포조선이 그리스 Capital Maritime&Trading으로부터 1,800TEU급 피더 컨테이너선 3척을 수주함. 지난 7월 3척 발주때 확보해둔 옵션분임. 선가는 총 1.89억달러임. 납기는 2023년 9월임. (선박뉴스)

### 현대삼호중공업, VLGC 2척 수주

현대삼호중공업이 현대글로비스로부터 86,000CBM급 이중연료 VLGC 2척을 수주함. 선가는 총 1.68억달러이며 납기는 2024년 6월임. (선박뉴스)

### 현대중공업그룹, 해상 플랫폼 개발

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은 한국석유공사와 공동으로 '한국형 해상용 이산화탄소 주입 플랫폼'을 개발하고 노르웨이 DNV로부터 기본승인을 획득함. 현대중공업 등 3사는 오는 2025년부터 동해가스전에 연간 40만톤규모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데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보도됨. (선박뉴스)

### MSC to splash out \$100m on panamax containerships at Mawei

Mediterranean Shipping Co(MSC)는 최소 2척의 Panamax 컨테이너선을 중국 국영 Mawei Shipbuilding에 발주할 것. 재래식 4,200TEU급 선박이며 납기는 2024년임. (Tradewinds)

### 탱커 해체량 늘기 어려울 듯

탱커 해체 가격이 떨어지며 탱커 시황 회복이 어려워 보임. 서비스에 투입된 VLCC 중 2020년 1척, 2021년 VLCC 2척이 해체 매각됨. 해체량이 늘어나지 않고 시황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탱커 운임 수입 역시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도됨. (선박뉴스)

### WTIV 업그레이드 활발

풍력 터빈 사이즈가 점점 커지며 WTIV 선주들이 기존 보유 선박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음. 벨기에 DEME Offshore은 WTIV 중 하나의 크레인 작업능력을 900t에서 1,600t로 업그레이드 할 계획임. 하지만 업그레이드를 진행해도 최근 발주된 WTIV에 비해서는 성능이 크게 뒤떨어짐. (선박뉴스)